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사 발문 연구*

- 태국 현지 수업을 중심으로 -

김 남 경 (대구가톨릭대 한국어문학부 조교수)
〈kerbell40@cu.ac.kr〉



1. 서론

이 연구는 해외(태국)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발문¹⁾을 연구하여, 한국어교육의 현장성과 수월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수업에서 교사 발화는,

* 이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본 논의에서 발문은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발화된 교사의 질문 형식의 담화를 뜻한다.

한국어를 목표 언어로 하는 학습자에게 한국 언어의 자료이자 표준이기도 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특히, 초급 한국어의 대부분은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언어로 전이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가 학생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발문은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최근 동남아 및 태국 현지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증대함으로써 특화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윤경원(2005), 노미연(2009)에서는 태국 현지의 한국의 교육의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 차원에서의 질적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혜련(2006), 김동환(2012)에서는 한국 국내의 한국어 교육 환경과 외국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한국어 교수 방법을 논하고 있다.

김상수(2013)에서는 한국어 교수 상황에서 적절한 발문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문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한국어 교사 8인의 발문을 분석·유형화하였다. 이광희(2012), 이혜진(2014)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발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 발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을 중심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사 발문을 분석·연구하여 한국어의 해외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삼는다.

2. 현지 한국어 교육 현장의 발문 분석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의 연구 자료로는 지난 2014년 7월에 이루어진 동남아(태국) 현지 교수·학습 상황의 동영상 5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발화된 교사의 발문을 연구 자료로 삼고, 교사의 발문은 질문 형식으로 한정하였다. 태국 현지 교사의 발문이므로 태국어와 번역한 한국어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유형화할 것이다. 유형화한 발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문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 현지 맞춤형 발문의 방향을 타진하고,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활용가능한 교사 발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태국 한국어 교육 현장 수업 구성 방식에 따른 발문 유형 분석

태국 현지교사의 한국어 교육 현장의 수업구성 방식을 구조화하고, 교사의 발화 중 질문형식의 발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태국의 수업 진행 방식은 음운-발음 수업, 어휘, 문법 수업에서 대체로 ‘판서 → 읽기 → 읽고 따라하기 → 말하기 → 쓰기’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태국 현지의 수업 구성 방식 고려한, 음운과 발음, 어휘, 문법 수업에서의 발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태국 현지 교사의 태국어 발문과 한국어 번역 발문을 동시에 제시하고, 그 유형을 분석²⁾한다.

2.2.1. 발음 및 음운 수업과 발문

다음은 태국 현지 교육 현장의 발음 및 음운 수업에서 행해진 발문을 발췌한 것이다. 수업은 제시→연습(읽고 따라하기) → 활용(말하기와 쓰기로 연계)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 전개		수업 내용	교사 발문 및 비고
제시	판서	받침 1. ㄱ ㅋ ㆁ 2. ㄴ 3. ㄷ ㅌ ㅊ ㅌ ㅍ ㅎ 4. ㄹ 5. ㅁ 6. ㅂ ㅃ 7. ㅇ	เลข คือ อะไร 7개 뭐지? แม่กน ไข่ม ๗ 받침 맞지? ตัว ที่ 2 เลข 다음 두 번째는? ต่อไป เน อะไร 다음 뭐지? แต่ง ตัว นี้ ตัว อะไรบาง 다음 이건 뭐지? แม่กน โกล ล ลิง ไข่ม ๗ 받침 끝! ㄹ 링 맞지? ตัว อะไร ลูก หรือ 이건 뭐지, 애들아? ต่อไป คอ ที่ 5 ตัว 다음 다섯 번째? ต่อไป คอ ที่ 6 ตัว อะไรบาง 다음 여섯 번째 이건 뭐지? อย่าคุยกัน อย่าคุยกัน ข้างล่าง ข้างล่าง ตัว อะไร 뒤에 뒤에 이거 뭐지?
연습	읽고 따라하기	가ㅇ	นี่ จำ แต่ง เขียน ตัวสะกด อยู่ ตรงไหน 이거?? 받침 어디에 쓰지?
활용	말하기	호명과 대답	(판서 → 질문 → 호명 → 확인 → 반복의 순서로 수업) ออกเสียงว่า อะไร 읽으면 뭐지? 누กัน ยกมี ตัวนี้ ออกเสียง อะไร 누กัน 손들어봐, 이거 읽으면 뭐지? เลย สะกด แม่ อะไร 무슨 받침이지? นี่ บอก ตัว อะไร 이거 말해 봐, 이거 뭐지? ตัวสะกด ตัวนี้ ออกเสียงว่า อะไร 받침 이건 어떻게 읽지?

2) 한국어교육에서 발문 유형의 분석기준으로, 박선옥(2003)에서는 학습내용 관련질문(반향적 질문(이해도 점검용, 설명요구용)과 지식적 질문(제시용, 조회용)과 학습진행 관련질문(사회적 관계용, 절차진행용, 주의집중용)을, 김상수(2013, 174)에서는 단계성 전략(지목하기, 도움주기, 응답대기, 연속발문)과 명료성 전략(발문재조정, 명료화요구, 발문반복, 재진술)을 제시하였다.

수업 전개	수업 내용	교사 발문 및 비고
		ลูก ถ้า ไม่มี สระ อะไร? 만약 모음이 없다면 뭐지? สระประสม เรียนหรือยัง ยัง อะไร ลูก 이중모음 배웠니, 안 배웠지, 애들아? ตัว นี้ อ่านว่า อะไร ลูก ตัวเล็ก อ่านว่า อะไร 이걸 읽으면 뭐지, 애들아 이걸 뭐지? อ้อ กับ อะ เป็น อะไร '오'하고 '아' 뭐가 되지? ต่อไป อ้อ กับ แอ 다음 '오'하고 '애'? ต่อไป อุ กับ เอ 다음 '우'하고 '에'?
쓰기 (받아쓰기)	교사가 불러주는 한국어를 칠판에 받아 씀. 카메라 새우 가위 위 워 의 우유 귀 지우개	ต่อไป วอ วอ สระ อะไร พร้อมกัน 다음 '워 워' 모음 뭐지? 같이 쓰는 것은? เขียน ไม่ได้ อุ กับ ออ 못 써? 우 하고 어 우 어 สระ ออ เขียน ยังไง 모음 '어' 어떻게 쓰지? เขียน ยังไง 우유 어떻게 쓰지? 우유? ไซ้ไหม 맞아?

자모교육과 관련된 발음교육 및 글자 합자의 원리에 대한 수업에서는 주로 단순 지식확인용 질문과 학생들의 답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지식확인용 발문

(1) แมกก ไซ้ไหม

แมกน โกล ล ลิง ไซ้ไหม

เลข คือ อะไร

ตัว อะไร ลูก หรือ

นี้ บอก ตัว อะไร

누깁 ยก미 ตัวนี้ ออกเสียง อะไร

ตัวสะกด ตัวนี้ ออกเสียงว่า อะไร

นี้ จำ แต่ง เขียน ตัวสะกด อยู่ ตรงไหน

เขียน ยังไง

ㄱ 받침 맞지?

ㄴ 받침 끝! 러 링 맞지?

(받침) 7개 뭐지?

이건 뭐지, 애들아?

이거 말해 봐, 이거 뭐지?

누깁 손들어봐, 이거 읽으면 뭐지?

받침 이걸 어떻게 읽지?

이거?? 받침 어디에 쓰지?

어떻게 쓰지?

자모교육에서는 지식확인용 발문으로 주로 ‘맞지?’와 ‘뭘지?’를 사용하고 있다. ‘맞지?’를 통해 전시복습단계에서 학생들의 지식을 환기·확인하고 있다. ‘(받침) 7개 뭘지?’에서 ‘이건 뭘지?’로 상위에서 하위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의 지식의 반복학습을 꾀하고 있으며, ‘어떻게 읽지?’에서 ‘어떻게 쓰지?’의 발문으로 읽기와 쓰기로의 기능연계를 꾀하고 있다.

2) 사고유도형 발문

- | | |
|-------------------------------|---------------------------|
| (2) ลูก ถ้า ไม่มี สระ อะไร? | 만약 모음이 없다면 뭘지 으응? |
| (3) อือ กับ อะ เป็น อะไร | ‘오’하고 ‘아’ 뭐가 되지? |
| ต่อไป อือ กับ แอ | 다음 ‘오’하고 ‘애’? |
| ต่อไป อุ กับ เอ | 다음 ‘우’하고 ‘에’? |
| ต่อไป วอ วอ สระ อะไร พร้อมกัน | 다음 ‘워 워’ 모음 뭘지? 같이 쓰는 것은? |
| เขียน ไม่ได้ อุ กับ ออ | 못써? 우 하고 어 우 어 |

자모 결합 단계 → 이중모음의 결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발문을 이용하여 발음의 원리와 쓰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만약 모음이 없다면 뭘지?’처럼 글자의 해체와 ‘오+아 뭐가 되지?’처럼 글자의 결합을 생각해보게 하는 발문이다.

- | | |
|--|-----------------------|
| (4) ตัว ที่ 2 เลข | 다음 두 번째는? |
| ต่อไป เน อะไร แต่ง ตัว นี้ ตัว อะไรบาง | 다음 뭘지? 다음 이건 뭘지? |
| ต่อไป คอ ที่ 5 ตัว | 다음 다섯 번째? |
| ต่อไป คอ ที่ 6 ตัว อะไรบาง | 다음 여섯 번째 이건 뭘지? |
| อย่าคุยกัน อย่าคุยกัน ข้างล่าง ข้างล่าง ตัว อะไร | 뒤에 뒤에 이거 뭘지? |
| (5) สระประสม เรียนหรือยัง ยัง อะไร ลูก | 이중모음 배웠니? 안 배웠지, 애들아? |

학습 전개용 발문으로, ‘다음 다섯 번째?, 다음 여섯 번째 이건 뭘지?’ 등으로 ‘다음’ 혹은 ‘번째’, 혹은 ‘뒤에’ 등이 쓰였다. 또한 예문 (5)와 같이 ‘이중모음 배웠니?’라는 발문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이중모음 학습 현황에 대한 질문이지만, 수업 전개상 ‘이제부터는 이중모음에 대해 수업한다’는 것을 알리기도 한다. 이처럼 주제를 바꾸어 다음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문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2.2.2. 어휘 수업과 발문

다음은 태국 현지 교육 현장의 어휘 수업에서 행해진 발문을 발췌한 것이다. 수업은 제시→ 연습(읽고 따라하기) → 활용(말하기와 쓰기로 연계)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 전개		수업 내용	교사 발문 및 비고
제시	판서	이름이 뭐예요?	ทำประโยชน์ ถามว่า ชื่อ อะไรคะ 이번 질문은 문장 질문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는 뭐지? '이름이 뭐예요' ใช่ไหมคะ 이름이 뭐예요 맞지요? 이름 แปลว่า อะไร 이름을 번역하면 뭐지?
연습	읽고 따라하기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니요, 미국사람이에요. 본문을 읽고 따라 읽기	(본문에 나오는 어휘 발음 → 태국어로 번역 판서.) (외래어인 경우- '러시아' → 태국발음 → 한국 발음) อ้อ 러시아 ใช่ไหมคะ 러시아 러시아 맞지? 러시아? รัสเซีย ใช่ไหม 러시아 맞아? หรือ อะไรนะ 러시아 ก็ คนไทยใช่? 러 뭐라고? 러시아 그리 고 사람이에요? เขา นอกว่า เป็น คนไทยใช่ไหมว่า ยังไง 태국사람이에요, 어떻 게 말해? เขาเป็น คนเกาหลี ใช่ไหม อ้อ 한국 사람이에요? 그는 한국사 람이에요, 맞지? แปลว่า อะไร 번역하면 뭐지? ต่อไป อะไร 다음 뭐지? ต่อไป คือ 다음?(일본) ต่อไป คือ 다음?(태국 타이) คือ เกาหลี ต่อไป 한국 다음? 러시아 คือ รัสเซีย 라씨아는? 러시아 중국 คือ อะไร จีน 중국은 뭐지?
활용	말하기	이 분이 누구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태국어) 질문 소방관, 회사원, 통역사, 가이드, 미용사 등.	(이 분 - 단어설명 - 이 사람 - 태국어로 존칭과 비존칭을 설명함) 이분이 누구예요 แปลว่า อะไร 이 분이 누구예요? 번역하면? เป็น ใคร ใช่ไหม 누구, 누구를 번역하면? 이분 แปลว่า ท่านนี้ 이 분 번역하면? 존대 (활동지 - 주제 - 직업관련 단어) 회사원 แปลว่า 회사원 번역하면? 회사 แปลว่า 회사 번역하면? บริษัท 원 คือ อะไร ลูก 원은 뭐지 애들아? มิน่า เป็น อะไร ลูก มิน่า 무슨 사람이지 애들아?

수업 전개	수업 내용	교사 발문 및 비고
		นักเรียน ต่อไป ชื่อ อะไรคะ 다음 이름이 뭐지? 선생님 แปลว่า 선생님 번역하면? 요리사 คือ อะไร 요리사 번역하면? 의사 แปลว่า หมอ 의사는? 소방관 แปลว่า 소방관 번역하면? นักแปล 번역가? ห้องสมุด คือ อะไร 도서관은 뭐지? สถานทูต 대사관은 뭐지?
쓰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학생 개인별 활동	학생은 고정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함. 학생 대 교사간의 활동만 존재함. 학생간 활동이나 그룹활동은 보이지 않음. 교수자료 - 교재 복사본. 그림이나 여타 교구 없음.

1) 이해확인용과 수업진행용 복합 발문

- (6) ทำ ประโยก ถามว่า ชื่อ อะไรคะ 이번 질문은 문장 질문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ใช่ไหมคะ 이름이 뭐예요는 뭐지?
이름이 뭐예요 ใช่ไหมคะ 이름이 뭐예요 맞지요?

이해확인용이면서 수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을 알리는 수업진행용 발문이다.

2) 지식확인용 발문

- (7) อ้อ 러시아 ใช่ไหมคะ 러시아 러시아 맞지? 러시아?
รัสเซีย ใช่ไหม 러시아 맞아?

지식확인용 발문으로, 외래어 ‘러시아’ 어휘를 환기하고 있다.

3) 번역요구용 발문

- (8) 이름 แปลว่า อะไร 이름을 번역하면 뭐지?
이분이 누구예요 แปลว่า อะไร 이 분이 누구예요? 번역하면?
เป็น ใคร ใช่ไหม 누구, 누구를 번역하면?
이분 แปลว่า ท่านนี้ 이 분 번역하면?

어휘 수업에 있어서는 주로 한국 단어를 주고, 모국어로 번역하게 하는 발문을 통해 어휘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와 같이 ‘이름, 누구, 이 분’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어휘와 모국어 어휘를 연계시키는 발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적 관련 단어 ‘타이,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등을 모국어 어휘로 번역하게 한다.³⁾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어휘(직업관련) 보조자료를 활동지로 배포하였는데, ‘회사원 번역하면? 회사 번역하면? 원은 뭐지 애들아? / 선생님 번역하면? 요리사 번역하면? 의사는? 소방관 번역하면? 번역가? 도서관은 뭐지? 대사관은 뭐지?’와 같이 주로 한국어를 제시하고 태국의 모국어로 번역하게 하는 발문을 이용하고 있다.

2.2.3. 문법 수업과 발문

다음은 태국 현지 교육 현장의 문법 수업에서 행해진 발문을 발췌한 것이다. 수업은 제시→연습(읽고 따라하기)→활용(말하기와 쓰기로 연계)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 전개		수업 내용	교사 발문 및 비고
제시	판서	1. 아요 (아/오) 가다-가요 2. 어요 먹다-먹어요 3. 해요 공부하다 - 공부해요	จำได้ไหม จำได้ ชัยไหม 기억하니, 기억하지, 맞지? 3 ถึง คือครั้งแรก 세 가지. 첫 번째 가요 맞아? ตัวอย่าง อย่างเช่น บอกว่า อะไร ลูก 예를 들어 말해보면 뭐지, 애들아? บอกว่า สระ อา แล้ว ก็ สระ โอ 말할면? 모음? (아) 그리고 모음? (오) เป็น 가요 ไช้ไหม ‘가요’가 맞지, 맞아? ต่อไปนี้ 2 อะไร 어요 다음 두 번째 ‘어요’는 뭐지? สระ 모음? อย่างเช่น 예를 들면?
연습	읽고 따라하기	판서를 읽고 따라하기	
활용	말하기	-아요/-어요 (7분) EXO를 좋아해요.	전체 활동 후 개인활동
	쓰기	친구를 만나요 한국어를 배워요 드라마를 봐요 〈활동지를 활용한 쓰기〉	<활동 중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교사 발문>

3) ‘타이 어떻게 말해? 번역하면 뭐지? 다음 뭐지? 다음?(일본) 다음?(태국 타이) 한국 다음? 라씨아는? 러시아, 중국은?’ 등과 같다.

수업 전개	수업 내용	교사 발문 및 비고
	동사 가르치다, 마시다, 만나다, 먹다, 배우다, 보다, 하다, 씻다, 읽다, 운동하다, 공부하다, 일하 다, 좋아하다, 숙제하다 활동 중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 이다 = 이에요/예요 〈판서〉 저는 닛이에요.	แปลไหม แปลไหม 번역할 수 있니? อ้อ แปลว่า ประจำน้อ 번역하면, 기억해? 먹 เป็น อะไร กินอะไร? 마시다 แปลว่า อะไร 마시는 뭐? แปลว่า อะไรนะ 번역하면 뭐? คำแปล ลูก คำแปล หน้า ลงเวลา นาที คำแปล เสร็จ หรือยังคะ 해석해보자, 해석 해봐. 5분 시간 줄게. 5분 동안 다했나요?

문법 수업은 음운 및 어휘 수업에 비해 단계적인 발문과 설명용 발문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1) 단계적 지식확인용 발문

(9) จำได้ไหม จำได้ ชไหม

3 ถึง คือครั้งแรก

บอกว่า สระ อา แล้ว ก็ สระ โอ

เป็น 가요 ใช่ไหม

기억하니, 기억하지?

세 가지. 첫 번째 가요 맞아?

말하면? 모음? (아) 그리고 모음? (오)

‘가요’가 맞지, 맞아?

문법교육에서는 좀더 단계적인 ‘기억 확인 → 지식의 구조적 환기 → 지식의 활용’ 면으로 지식확인 발문을 행하고 있다.

2) 지식 설명요구용 발문

(10) ตัวอย่าง อย่างเช่น บอกว่า อะไร ลูก

ต่อไป ที่ 2 อะไร 어요

สระ

อย่างเช่น

예를 들어 말해보면 뭐지, 애들아?

다음 두 번째 ‘어요’는 뭐지?

모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말해보거나, 어떤 의미인지를 되물어보는 지식의 ‘설명요구’를 위한 발문을 이용하고 있다.

3) 번역요구용 발문

(11) แปลไหม แปลไหม

번역할 수 있니?

อ้อ แปลว่า ประจักษ์

번역하면, 기억해?

먹 เป็น อะไร

먹은 뭐지?⁴⁾

마시다 แปลว่า อะไร

마시다는 뭐지?

แปลว่า อะไรนะ

번역하면 뭐지?

คำแปล ลูก คำแปล หน้า ลองใช้เวลา นานที่ คำแปล เสร็จหรือยังคะ

해석해보자, 해석 해봐. 5분 시간 줄게. 5분 동안 다했나요?

어휘교육에 있어서, 주로 한국 어휘를 제시하고, 모국어 어휘로 번역하는 발문을 사용하였는데, 문법교육에 있어서도 문법 구조를 발문하고 모국어의 문법구조로 번역하게 하거나, 해석하게 하는 발문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지식확인용 발문과 번역요구용 발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발문의 문법 형태가 매우 단조롭고, 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의 텍스트로 된 교재 외에는 보조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3. 현지 한국어 교육의 발문 개발

앞 장에서 태국어 교사가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 현장의 발문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발문 분석을 통하여, 교사의 발문의 유형이 지식확인용인 주로 '뭐지?'와 번역요구용 발문인 '번역하면?', '해석하면?'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비슷하게 반복되는 발문의 경우, 초기 몇 번은 태국어로 하고, 이후에는 한국어의 비중을 늘려서 한국어로 진행한다면, 교재 외에서도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발문 개발은 해외 현장에서 교재 외에 한국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해외 현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발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태국 현지의 수업 방식을 고려하여, 발음, 어휘, 문법 수업에서의 발문을 도출하고, 학습자의 반응이나,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한 발문을 중심으로 보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4) '먹은 어떻게 문법적으로 활용하지?'의 의미임.

3.1. 현지 수업 내용과 방식을 고려한 발문

태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1차시 45분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되며, ‘제시 → 연습 → 활용’의 순서를 거친다. 대체로 ‘판서 → 읽기 → 읽고 따라하기 → 말하기 → 쓰기’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수업 진행 방식은 음운-발음 수업, 어휘, 문법 수업에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발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태국 현지의 수업 구성 방식을 고려하여, 음운과 발음, 어휘, 문법 수업에서의 활용가능한 발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3.1.1. 음운과 발음교육⁵⁾을 위한 발문

모국어 화자의 경우, 듣기를 통하여 이미 수없이 경험한 언어이므로, 발음은 머리 속 발음사전에 기억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어의 발음은 특별한 것만을 교육의 대상이 되며, 수업 시간 안에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발음 방법, 발음 원리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현정(2013,491)에서도 한국어 교육 수업에서는 대부분이 통합 교재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급 교재의 첫 부분에서 기본적인 발음과 음운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 본문에서 한국어 발음 및 음운 현상 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있어서 발음은 생소한 것이며, 체계적인 지식을 쌓지 못할 경우, 모두가 암기⁶⁾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

태국 수업 현장에서는 교사가 판서해주고, 태국어의 음운을 대조해가며 설명하고, 읽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암기를 유도한다. 그러고는 써 보는 활동으로 전이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한국어 음운이나 발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연습이 부족한 채로 머물게 한다.⁷⁾

본 논의에서 음운과 발음에 관한 발문은 탐구학습 모형⁸⁾을 일부 적용하되, 학습자가 해당 음운이나 발음 현상을 찾아내는 과정을 초급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교사가 대신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발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중고급 학습자라면 교재나

5) 허유라·박덕유(2012, 370)에서는 <표준발음법>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항목으로, 1. 음운(자음, 모음), 2. 운소-소리의 장단, 3. 음절말 끝소리규칙, 4. ‘ㅎ’발음(축약과 탈락), 5. 연음규칙(절음법칙 내포), 6. 구개음화, 7. 비음화, 8. 유음화, 9. 모음동화(모음조화, 모음축약 포함), 10. 된소리, 11. 첨가(ㄴ첨가, 사잇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6) 실제로 본 연구자가 담당한 외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은 한국어 공부에서 발음이 매우 어렵고,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아, 모두 외우면서 공부한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7) 유현정(2013,505)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발음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동시에 고급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8) 탐구학습 모형에 대해서는 최미숙 외(2012, 105-106)을 참조할 수 있다.

사전을 이용하여 해당 현상을 찾아내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의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음운과 발음에 관한 발문으로는 음운의 제시와 발음에 관한 발문, 어휘의 제시와 발음에 관한 발문, 문장의 제시와 발음에 관한 발문으로 단계적, 위계적으로 발문할 수 있다.

1) 해당 음운의 제시와 발음에 관한 발문

해당 음운을 포함한 1음절에서의 발음에 관한 발문은 다음과 같이 조직할 수 있다.

(12)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이것 읽어볼까요?

(13) 이 중에서 같은 소리-, 어떤 것들이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소리가 나지요?

이것과 이것은 어떤 소리예요, 어떤 발음이에요?

발문 (12)는 해당 음운을 제시 후, 주의집중과 사고 증진을 위한 발문이다. (13)은 해당 음운을 포함하는 1음절 단어를 나열하고, 음운에 해당하는 발음을 확인-연습할 수 있는 발문이다. 이때 자음의 경우는 초성과 종성에서 발음이 다른 경우를 주목시키며 발문할 수 있다.

2) 어휘의 제시와 발음에 관한 발문

해당 음운을 포함한 어휘 및 단어 단위에서 발음교육은 다음과 같은 발문을 사용할 수 있다.

(14) 그럼 좀 전의 발음을 단어들 속에서 찾아볼까요?

단어를 읽어볼까요?

(15) 혹시 글자와 소리가 다르게 나는 부분 있어요?

그럼 다른 단어들도 읽어볼까요?

(한국표준발음 제시 후) 생각했던 발음과 다른 부분 있어요?

어떤 단어가 (표기와 발음이) 달라요?

(발음 환경)이 단어는 글자와 발음이 같은데, 이 단어는 글자와 발음이 달라요.

이 단어는 왜 글자와 발음이 달라요? (같은 음운현상 다른 단어 반복)

(16)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발문 (14)는 단어 속에서 해당 음운을 찾고, 그 발음을 연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발문 (15)에서는 ‘글자와 소리가 다르게 나는 부분’을 찾아보게 하여, 어휘 속에서 표기와 발음의 차이, 음운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발문이다. 학습자가 현상을 분석하는 동안 여러 방향과 단계의 발문이 필요하며, 이때 짝활동이나 그룹활동을 유도하면,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통하여 해당 음운현상의 규칙 및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⁹⁾ (16)과 같이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봄으로써 해당 음운 변화 및 음운 현상에 대한 관련 단어장의 기억을 지속시킬 수 있다.

3) 문장의 제시와 발음에 관한 발문

음운 및 발음 교육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 속에서 해당 음운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장 단위의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문장 단위에서 발음에 대한 발문이다.

(17) 다음 문장들을 읽어볼까요?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들을 찾았어요?

그 단어들을 다시 발음해볼까요?

(18)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발문 (17)과 같이 실제 사용가능한 문장 단위에서 단어 속의 해당 음운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다. 이때 의도적으로 해당 음운이 포함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듦으로써 관련 단어를 묶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¹⁰⁾ 또한 (18)과 같이 음운 현상이나 규칙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게 함으로써 규칙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학습자들에게는 장기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발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능력 향상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위의 ‘음운 및 발음교육을 위한 발문’에서 제시한 발문을 활용¹¹⁾ 발음교육에

9) 허유라·박덕유(2012, 365)를 참조해보면, 발음교육에 관하여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 음운 규칙에 대한 원리 설명을 추가한다면 정확한 발음과 함께 더욱 오래 기억하고, 오용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10) 아래 ‘문장의 제시와 발음’의 예와 같이 관련 단어를 문장으로 묶을 수 있다.

11) 조향숙(2013, 536)에서는 실제 초급 학습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어 초성과 종성의 발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고하고 있다.

적용한 것이다.

<음운과 발음 교육 발문 예시 - 홀받침>

[음운의 제시와 발음]

벽¹²⁾ 박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이것 읽어볼까요?

[벽] [박]

이 중에서 같은 소리-, 어떤 것들이에요?

네, 아래, 받침이 같지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소리가 나지요? 이것과 이것은 어떤 소리에요, 어떤 발음이에요?

받침의 경우, ㄱ, ㄴ은 모두 어떤 발음이 날까요?

그럼 쯔전의 발음을 단어들 속에서 찾아볼까요?

[단어의 제시와 발음]

부엌과 부엌에 수박 벽돌

단어를 읽어볼까요?

[부엌파] [부어케] [수박] [벽돌]

(한국표준발음 제시 후) 생각했던 발음과 다른 부분 있어요? 어떤 단어가 달라요?
부어케요.

부엌과는 [부엌파]로 발음되어, ‘ㄱ’으로 발음되는데, 부엌에는 [부어케]로 ‘ㄱ’으로 발음되지요? ‘부엌’ 다음에 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부엌 다음에 ‘ㅇ’이 오면 부어+받침 ‘ㄱ’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부엌에, 부엌이, 부엌은, 부엌으로, 부엌을’ 읽어볼까요?

[부어케, 부어키, 부어큰, 부어크로, 부어쿨]

‘부엌 밖, 부엌도, 부엌 사이’ 읽어볼까요?

[부엌 밖, 부엌또, 부엌 사이]

어떤 경우에 ㄱ으로 발음하고, 어떤 경우에 ㄱ으로 발음하죠?

[문장의 제시와 발음]

다음 문장들을 읽어볼까요?

부엌 벽 밖에 수박 파는 소리가 들린다.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들을 찾았어요?

부엌, 벽, 밖에, 수박

그 단어들을 다시 발음해볼까요?

[부엌], [벽], [바깥], [수박]

받침의 경우, 글자와 소리가 달라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3.1.2. 어휘 교육을 위한 발문

태국 현지에서는 어휘의 교육은 대체로 번역요구용 발문인 ‘번역하면 뭐지?’로 일관되게 행해지고 있다. 말하자면, 어휘에 대한 예측이나 부연 설명없이 모국어와의 연계를 통한 1:1 매칭 형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제시되고 있다. 어휘의 특성 - 말하자면 어휘장을 이용¹³⁾한다거나, 어휘가 가진 위계, 다른 어휘 간의 관계, 문장 속에서의 활용 등의 발문은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림이나 게임 등의 방법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모국어와의 일대일 대응 번역으로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어휘교육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발문이 요구된다.

1) 어휘를 예측하게 하는 발문

스무 고개 형식을 빌려, 해당 어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어휘를 예측하기 위한 한국어를 함께 학습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어휘를 예측하게 하는 발문이다.

(19) 이 어휘 본 적 있어요?

이 어휘는 무엇과 관련 있을까요? 먹는 것? 물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어휘는 우리 반 누구와 어울릴까요?

(20) 이 문장 속에서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는?

발문 (19)와 같이 어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예측해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관심을 유발한다. 다음으로, ‘무엇과 관련 있을지’ 예측하게

12) 김훈태(2013, 37)에서도 태국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할 한국어의 자음은 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ㄱ, ㅈ, ㅅ’이라고 한다.

13) 어휘장에 관한 본격적인 교수 방안 논의로는 이양혜(2008)과 문금현(2011) 등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하는 개방형 발문과 선택형 발문¹⁴⁾을 적절히 활용하여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누구와 어울릴지 연관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범위를 좁힌 다음 (20)과 같이 ()속을 채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예측을 해보게 할 수도 있다.

2) 어휘를 열거하게 하거나 유사어, 반의어를 탐구하는 발문

주제와 관련되는 어휘를 열거하게 하거나, 어휘의 유의어, 반의어 등을 말하게 하고, 모국어를 말하는 경우, 해당 한국어 어휘를 찾아보게 하거나 제시해 줄 수 있다.

(20)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것’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 있는 어휘는 무엇무엇이 있어요?

(21) 어휘 중에 ‘이것’¹⁵⁾이 포함된 어휘는 무엇무엇이 있어요?

(22) 이것과 비슷한 것은 뭐예요?

이것과 반대는 뭐예요?

발문 (20)(21)(22)는 어휘장을 염두에 둔 발문이다. (20)은 해당 주제에 관해 관련지을 수 있는 어휘를 나열하게 하는 발문인데, 떠오르는 대로 나열하게 할 수도 있고, 시간적, 공간적, 위계적으로 나열하게 할 수도 있다. (21)은 한국어 조어법과 관련하여 합성어나 파생어를 환기하기 위한 발문이다. (22)는 유사어휘 및 반의어를 함께 학습하게 하는 발문이다.

3) 어휘를 설명하게 하는 발문

핵심 어휘와 관련되는 관련 어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3) 이 어휘는 어떤 뜻이에요?

이 어휘를 이런 이런 단어를 이용하여 설명해볼까요?

발문 (23)과 같이 제시한 어휘를 설명하게 하거나, 학습자가 이를 어려워할 경우, 관련

14) 주로 개방형 발문은 주의를 집중하게 하거나 확산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사고를 수렴시키고 적절한 대답을 돕기 위해서는 선택형 발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로 개방형 발문에서 선택형 발문으로 조직하게 된다.

15) 아래 ‘어휘 열거 발문의 예시’에서는 직업을 나타내는 ‘-사’를 예로 들었다.

어휘를 제시하여 이를 이용하여 단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 설명의 발문은 다의어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위의 ‘어휘 교육을 위한 발문’에서 제시한 발문을 ‘직업’ 관련 어휘 교육에 적용한 것이다.

<어휘 교육을 위한 발문 예시 - 직업>

[어휘 예측 발문 예시]

배고프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누구에게 부탁하면 더 맛있을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반에서 누가 이 직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직업은 한국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휘 열거 발문 예시]

오늘 아침에 학교 오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우리 반 학생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직업을 각각 정해볼까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직업¹⁶⁾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직업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흰 옷을 입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리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에서 ‘샤’가 들어가는 다른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휘 설명 발문 예시]

요리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향료, 조리기구, 불, 기름, 튀김 등을 이용하여 요리사를 설명해볼까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16) 이와 같은 발문은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발문이 된다.

3.1.3. 문법 교육을 위한 발문

태국 현지 교육 현장의 문법 수업에서는 제시→연습(읽고 따라하기)→활용(말하기와 쓰기로 연계)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법 수업은 음운 및 어휘 수업에 비해 단계적인 발문과 설명용 발문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법 수업에서는 특히 단계적 지식을 확인하는 발문과 해당 문법이 포함된 문장을 모국어로 해석하게 하는 발문들이 활용되고 있다. 주로 지식의 암기와 해석에 치중한 수업방식이라 분석된다. 이것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표현의 단계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으로 이끌 수 있는 발문을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 관련 문법 항목 관련 단어 및 문장 제시 발문

음운 관련 발문과 같이 문법 교육을 위한 발문에서도 탐구학습의 모형을 적용¹⁷⁾한 발문을 활용할 수 있다.

(24) 지난 시간에 ‘무엇’에 관해 배웠죠?

(25) 다음을 한번 볼까요?

또 이런 문장도 볼까요?(반복)

발문 (24)와 같이 해당 문법 항목과 관련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복습 및 환기시키는 발문으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이어 (25)와 같이 문법 항목을 포함한 문장을 여럿 제시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발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발화한 단어를 이용하여, 해당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흥미를 갖게 하고, 어휘의 확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2) 문법 항목 발견과 체계화를 위한 발문

다음은 문법 항목을 가려내고, 그 항목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문이다.

(26) 다음 문장에서 같은 무엇이에요?

밑줄 친 것들이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17) 발음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법교육에서도 탐구학습의 모형을 적용하되, 제시에 있어서는 학생주도적 수업으로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교사의 다양한 관련 문법 자료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27) 같은 것들 중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나요?

무엇과 무엇이 달라요?

다른 것 몇 가지가 있어요?

발문 (26)은 문법 항목 발견을 위한 것이다. 문장에게 반복되는 것을 찾고 공통분모를 추려내게 하는 발문이 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경우, 밑줄이나 표시를 해서 문법항목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7)은 문법 항목의 체계화를 위한 발문으로, 넓은 범위의 문법 항목을 찾은 뒤, 음운의 차이라든가, 의미의 차이로 문법항목의 변화가 생긴 변이음 등을 찾아보게 하는 발문이다. 이러한 발문의 효과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는 문법교육의 방식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차이점을 생각하게 하는 학생주도의 문법교육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문법 수업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⁸⁾

3) 문법 항목 연습을 위한 발문

다음은 문법 항목 연습을 위한 발문이다.

(28) 이 단어를 바꾸어볼까요?

(29) 제시한 단어들 가운데 몇 가지로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우리가 만든 문장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볼까요?

(28)의 발문은 단어 단위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단어 중심으로 문법 항목을 연습한 후, (29)와 같이 문장 전체를 만들어 말하기나 쓰기 단계로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여러 문장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발문을 활용하여 문장 안에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은 위의 '문법 교육을 위한 발문'에서 제시한 발문을 문법 항목 'V-았/었'에 적용한 것이다.

18)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문법 학습을 문법 항목과 받침의 유무, 동사 및 형용사의 구분, 혹은 변이음과 몇몇 핵심 의미를 암기하는 방식은, 규칙의 예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든 경향이 있다.

<문법교육을 위한 발문 예시 - V-았/었->

[문법 제시 발문]

~~ 씨, 어제 무엇을 했어요?

공부? 누구누구씨는 어제 공부했어요?

먹다? 누구누구씨는 어제 먹었어요?

자다? 과거에... 잤어요?

숙제? 숙제했어요? 읽다? 읽었어요?

<판서로 제시>

공부하다 - 공부했다 먹다 - 먹었다 자다 - 잤다

숙제하다 - 숙제했다 읽다 - 읽었다 가다 - 갔다

주다 - 주었다 사랑하다 - 사랑했다 오다 - 왔다

[문법 항목 발견과 체계화를 위한 발문]

-었-, -았(으)-, -했- 3가지를 찾았어요?

어떤 단어에 ‘-었-’을 써요?

어떤 단어에 ‘-았(으)-’을 써요?

먹-, 읽-, 주- / 오-, 가-, 자-에는 어떤 모임들이 들어 있어요?

어떤 단어에 ‘-했-’을 써요?

[문법 항목 연습을 위한 발문]

지금 공부해요, ~~씨 어제는?

지금 책을 읽어요, 어제는?

지금 빵을 먹어요, 어제는?

지금 물을 마셔요, 어제는?

지금 시장에 가요, 어제는?

~~씨,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어요?

~~씨, 어제 무엇을 했어요?

~~씨, 오늘 일어나서 학교에 올 때까지 무엇무엇을 했어요?

3.2. 수업 개선을 위한 추가 발문

태국 현지 교육 현장에서는 음운 및 발음, 어휘, 문법 중심의 3가지 유형의 수업에서 그림을 이용하거나, 다른 보조자료를 사용하는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판서→연습(말하기, 쓰기)’의 방식으로 구성·진행되었다. 주로 발음이나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수준에서 수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거나 호기심을 끌 만한 수업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했다. 3.2.에서는 이러한 수업 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를 활용한 발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 외에도 현지문화를 고려한 발문 및 효율적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발문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3.2.1.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를 활용한 발문

태국 현지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복사본에 그림이 있음에도 그것마저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은 그림에 대해 활용가능한 발문을 제시한 것이다.

1) 전체 그림에 대한 상기 이미지 발문

다음은 그림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상기하게 하는 발문이다.

(30)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그림을 제시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관련되는 어휘나 문법 항목을 예측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본 수업으로 이끌 수 있기도 하다. 발문 (30)과 같이 주의를 끌고, 예측하게 하거나 상상하게 하여 언어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학습자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그림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배경에 대한 발문

다음은 그림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배경을 분석하게 하는 발문이다.

(30) (사진)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이 그림(사진)에 나오는 것들은 무엇무엇이에요?

사물, 사람, 글씨가 있나요?

장소나 배경은 어디인 것 같아요?

발문 (30)과 같이 사진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글자, 사람 등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그림에 나타나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장소나 배경도 그림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발문을 활용할 수 있다.

3)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 인간관계, 행위, 표정에 대한 발문

다음은 그림에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인간관계, 행위, 표정을 이해하게 하는 발문이다.

(31) 사람의 경우, 몇 사람인가요?

어떤 사이, 관계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직원과 고객...? 어떤 관계예요?

(32)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표정이 어때요? 기분은 어떤 것 같아요?

발문 (31)은 그림이나 사진에서 2인 이상의 사람이 나오는 경우, 등장 인물간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게 하는 발문이다. 인간관계 파악을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 속의 다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32)의 발문은 인간관계를 파악한 후, 각각의 사람을 분석하게 하는 발문으로, 행동이나 표정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도록 도울 수 있다.

4) 두 개 이상의 그림 분석에 대한 발문

다음은 두 개 이상의 그림을 분석하기 위한 발문이다.

(33) 두 개의 그림이라면, 어떤 점이 달라요?

어떤 점이 같아요?

발문 (33)은 두 개 이상의 그림을 제시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게함으로써 목표한 교육으로 접근하게 하는 발문이다.

그림은 문법 ‘V-아/어 보세요’를 제시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다양한 발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수 목표에 맞게 적절히 발문할 필요가 있다.

<그림의 발문 예시- ‘V-아/어 보세요’ 관련 그림>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그림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왜 신발가게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나오나요?



〈서울대 한국어 1B(2013) pp139〉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그림에서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직원이라면, 여자가 신발(구두)을 가리키는데, 남자는 두 손을 펴고 있지요?

남자의 표정은 어때요?

신발 사러 가 본 적 있어요?

신발을 사러 가게에 가면 점원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수업 개선을 위한 발문으로 현지 문화를 고려한 발문이나 수업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발문 등이 요구된다. 현지 문화를 고려한 발문은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어와 문화에도 더욱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해외(태국)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발문을 조사하여, 한국어교육의 현장성과 수월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의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발화된 한국어 교사의 발문(질문)을 연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의 수업의 구성과 방향을 파악하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문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태국에서 한국어 수업은 주로, 해당 음운, 어휘, 문법을 제시 → 연습 → 말하기 → 쓰기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한국어 교육의 초기 형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며, 교사 위주의 수업이었다. 또한 교사의 발문은 모두 학습자의 모국어로 진행되었으며, 발문의 유형 역시 주로 지식확인용 발문(맞지?, 뭐지?)과 번역요구용 발문(번역하면?)이 대부분이어서 보다 효과적인 발문이 절실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한국어로 발화된 발문을 바탕으로, 현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국 현지의 수업 내용과 방식을 고려한 발문(음운과 발음, 어휘, 문법 교육을 위한 발문)을 제안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림을 활용한 발문을 제시하였다.

해외 현지에서는 수업 자료와 수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발문들이 개발되어, 한국어 교육 현장의 효율성과 수월성, 현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동환. 2012. “모국어 지배 환경에서의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 연구 -태국 내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 61-98.
- 김상수. 2013. “한국어 교사 발화에 나타난 발문 전략 연구”. 『한국어학』 60, 167-188.
- 김훈태. 2013. “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방안”. 『언어학연구』 28, 27-48.
- 노미연. 2009. “태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어문학연구』 53, 97-121.
- 문금현. 2011.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 7-47.
- 박선옥. 2003. “한국어 교사의 질문 유형과 기능에 대한 연구”. 『화법연구학회』 5, 371-399.
- 윤경원. 2005.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 『東南亞研究』 15, 113-139.
- 이광희. 2012. “한국어 교사의 발문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혜. 2008. “한국어 신체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확장 교수·학습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3, 227-254.
- 이해진. 2014. “한국어 읽기 수업에서 읽기 전 단계의 교사 발문 연구”.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향숙. 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 531-559.
- 최미숙 외. 2012. 『국어 교육의 이해』. (주)사회평론.
- 홍혜련. 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교육”.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 193-213.

A study on teachers' inquiry of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Kim, Nam Kyu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is to analyze teachers' inquiry in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especially in Thailand, with the purpose of raising applicability and supremacy of Korean education.

In this study, the Korean teachers' spoken question was researched for Korean education of Korean classes in Thailand, Based on this, it grasped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local class, and additionally developed questions to improve Korean language skills.

In Thailand, Korean classes mainly proceed with presenting phoneme, vocabulary, grammar → practice → speaking → writing. This is the level of the early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in the teacher directed class. Also, the teachers' questions were presented in the learners' mother tongue, and simple questions were used with the purpose of verifying information such as majji?, mwoji? and for demanding translations such as beonyeoghamyeon?

With the proper level of spoken questions in Korean, this study suggests questions with consideration of the local class contents and methods used in Thailand to increase applicability. In addition, it also presents the questions with the use of picture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overseas(Thailand). applicability, supremacy